

제자훈련 철학의 바통을 잘 잇는 아름다운 교회



고문산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동 신학대학원(M. Div.)과 일반대학원(Th. M)을 졸업했다.
독일 본(Bonn) 대학교 실천신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총신대 일반대학원에서 실천신학 박사(Th. D) 과정 중에 있으며,
람원교회와 사랑의교회 부목사로 사역한 후, 현재 강남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노량진’과 강남교회

노량진에는 그곳만의 특유한 문화가 있다. 전국에서 물가가 가장 싸고, 음식 값이 가장 싼 곳. 서울에 있지만, 웬지 모르게 서울 같지 않으며, 식사 시간에는 학원가 특성상 엄청난 인파가 붐비다가 식사 시간이 끝나면 조용해지는 곳. 그리고 전국에서 잡힌 좋은 어패류들이 집결되는 수산시장이 있다 보니 사람이든, 어패류든 할 것없이 전국에서 모였다가, 제각각 흩어진다. 이것이 노량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량진에 형성된 문화를 설명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그러다 보니 노량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산다. 각종 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수험생들로부터,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 그리고 전쟁 이후 북에서 떠나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실향민들까지, 전국에서 가난과 고생으로부터 탈피하고자 세대를 불문하고 서민들이 모인 곳이 노량진이다.

이런 특유한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으로 이웃과 사회를 섬기고 돌보기 위해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강남교회다. 다양한 서민들을 섬기고, 이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강남교회는 과거 송태근 목사라는 존경받는 목회자가 섬기던 교회라 더욱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현재 강남교회는 2012년 10월부터 제자훈련 목회를 이어받아, 지역 사회의 변화를 꿈꾸고, 사회적 영향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 내는 비전을 가진 강남교회 4대 목사인 고문산 목사가 섬기고 있다. 고 목사는 노량진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제자훈련 교회로서의 명맥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있다.

개척 교회에서 시작된 믿음의 삶

고문산 목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중3이 돼서야 친구의 전도로 영산교회라는 개척 교회에 출석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신앙을 가지는 본격적인 계기가 됐다. 이후 고 목사는 대학 진학을 놓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금식기도를 하다 여호수아 1장 8~9절 말씀을 깊게 묵상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학대학교로 인도하신다고 판단해 충신대 신학과에 진학했다. 고 목사는 신학교 진학을 앞두고 과거 아버지가 신학을 공부하셨다는 말을 어머니로부터 처음 듣게 된다. 이때 집안에 있었던 상처들을 알게 됐는데, 이를 통해 학업에 정진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굳게 먹었다.

고 목사는 대학 시절 ‘독일어 연구회’라는 동아리의 창립 멤버가 돼 선후배들과 독일어 원서를 강독하던 중에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본회퍼 목사를 통해 목사가 시대를 읽어 내고, 사회적 참여를 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젊은 나이에 미국 신학교 교수가 돼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치에 대해 향해 양심선언을 했던 본회퍼 목사의 모습이 고 목사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리하여 ‘목사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학업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학업에 비중이 높았지, 목회에는 큰 뜻을 두지 않았다고 했다. 가난한 신학생 신분엔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서는 학비와 생활비 등을 얻을 수 없어 목회의 끈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관심 분야에 대한 공부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고 목사는 동서 형님을 도와 개척 교회에서 사역했고, 독일 유학 시절에는 쾰른의 한인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기도 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의 소중함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끊임없이 목회



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다 독일 유학 시절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박사 논문을 쓰던 중 담당 지도교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공부를 이어갈 수 없어 한국으로 돌아왔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1년간 '제자원'이라는 출판사에서 주석책을 만들면서 시간을 보냈다. 고목사는 그때를 회상하며, 분명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알았지만, 당시에는 생활이 어려워 신학을 포기할까 하는 고민까지도 했다고 말했다.

이후 고목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람원교회 고등부목사로 섬긴다. 당시 고목사는 고등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자 머리에 브릿지도 넣어 보며, 고등부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감사하게도 그가 섬기던 고등부는 부흥했고, 교회 학교의 모델이 됐다. 이후 그는 목회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역하면서 '목회의 기쁨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소명임을 재확인하게 된 것이다.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람원교회 고등부와 청년부 사역을 통해 확인한 고목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의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게 된다. 그는 사랑의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경험했는데, 처음 맡게 된 부서가 교통부였다. 새벽부터 고생하시는 집사님들의 헌신과 삶을 경험하며 '이런 것이 목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또한 정감운동, 법조선교부를 담당하며 전문 엘리트 그룹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그리고 성

경대학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고문산목사는 사랑의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경험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회 현장으로 깊숙이 데리고 가고 계심을 자연스럽게 느꼈다.

제자훈련 목회에 눈뜨다

고문산목사는 스스로 제자훈련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한다. 제자훈련을 정확히 모른 채 단순히 제자훈련은 교회 성장에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제자훈련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독일을 다녀오고 2002년 람원교회 교육목사로 부임하면서부터다.

3년간의 고등부 사역 이후, 청년대학부를 맡았는데 청년부 훈련 교재가 바로 제자훈련 교재였던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자훈련 교재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사랑의교회에서 사역하는 부목사들과 교제하면서 사랑의교회 제자훈련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09년에 사랑의교회에 부임했다.

사랑의교회에 부임한 고목사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첫 번째 충격은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압도적인 은혜였다. 오정현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 속에서 고목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한다. 또한 보통 교회 전도사 수준인 순장들의 소그룹 인도 실력과 헌신에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 이로 인해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대형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정리됐고, 교회 사역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 충격은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이하 CAL세미나)에 참석한 순간이었다. 당시 고(故) 옥한흠목사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고목사는 영상으로 '광인론'을 접했다. 그는 『평신도를 깨운다』를 읽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옥목사의 강의 내용이 한스 쾅의 『교회』를 바탕으로 논리적 체계가 명

확했기 때문에, 고 목사는 이성적 동의가 쉬웠다고 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옥 목사의 실전 경험이 연결돼 이루 말할 수 없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세 번째 충격은 사랑의교회 제자훈련 현장이었다. 당시 새로 부임한 목사들은 훈련부를 담당하는 강명옥 전도사의 지도하에 제자훈련 탐방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인도하지는 않지만, 한 학기 동안 사랑의교회 부교역자들이 운영하는 제자반을 다니면서 교역자들이 훈련을 인도하는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게 됐다. 고 목사에게는 교재를 활용해 소그룹을 역동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이 너무나 신선했고, 제자반 안에서 이뤄지는 변화의 역사를 맛보며 이것이 왜 목회의 본질인지를 깨닫게 됐다.

그는 CAL세미나를 통해 제자훈련 목회 철학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후, 현장에서 이뤄지는 변화의 역사를 통해 목회 철학의 근간을 세우는 엄청난 도전을 받는다. 결국 고 목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제자훈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지금도 제자훈련을 통해 훈련받은 평신도를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사랑의교회 현장을 통해 자신의 목회 철학의 근간을 재점검한 고 목사는 제자훈련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삶을 나누고, 결단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고 목사가 사랑의교회 현장을 통해 배운 목회 철학이다. 고문산 목사는 지금도 부교역자들에게 제자훈련 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 이 말에는 제자훈련 목회에 대한 그의 확신이 내포돼 있다. 또한 다른 대안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 목사는 사랑의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며 온전한 목회 철학을 세울 수 있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던 중 2012년 강남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받는다.



사랑의교회에 부임한 고 목사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첫 번째 충격은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압도적인 은혜였다. 두 번째 충격은 CAL세미나에 참석한 순간이었다. 세 번째 충격은 사랑의교회 제자훈련 현장이었다.



평소 존경하던 목회자가 섬기던 교회 후임으로

강남교회는 지난 62년 동안 노량진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긴 주님의 몸 된 교회다. 1954년 4월 18일 부활주일 아침,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한 김재술 목사와 16명의 피난민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다. 이후 강남교회는 노량진 일대의 빈민촌과 판자집 안에서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 노량진의 빛과 소금, 하나님의 밀알로서 하나님께서 강남교회를 사용하신 것이다.

이후, 2대 이규왕 목사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며, 교회 건축의 발판을 마련했고, 3대 송태근 목사에 의해 교회 건축 완공과 제자훈련이 시작된다. 고 목사는 송 목사를 일컬어 “산 같은 분이십니다”라며 존경을 표했다. 교제를 많이 해 보지는 않았지만, 항상 자신을 오래 만났던 후배처럼 대해 주셨다고 한다. 그리고 송 목사는 고 목사에게 “목사님, 저도 이 교회에서 10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10년을 목회했습니다”라는 말로 조언을 대신했다고 한다. 고 목사는 산과 같은 송 목사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강남교회에서 지난 시간 사역하신 바들을 잘 계승해 나가고 싶다고 했다.

고문산 목사는 처음 강남교회에 와서 느낀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송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말

숨을 듣고 자란 교회라서 말씀 듣는 훈련이 너무나 잘돼 있었 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이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강한 애정 을 갖고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역의 자리에서 최 선을 다해 섬기십니다.”

고 목사는 강남교회의 제자훈련의 터가 잘 다져져 있어서 감사했고, 앞으로 자신도 이 부분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 가야겠다고 다짐했다.

평소 존경하던 목회자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것 은 분명 고 목사에게 부담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 목사는 강남교회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앞으로의 사역도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잘 계승하고 발전시 켜 나갈 것이라고 결심했다.

제자훈련 시작한 지 25년 된 강남교회

강남교회는 1991년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평신도를 깨운다』를 가지고 3년 과정 으로 제자훈련을 했다. 이후 2000년부터는 네비 게이트에서 발간한 교재로 훈련을 하다가 2006



강남교회 제자훈련은 현재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제자훈련의 터를 잘 닦아 놓은 부분을 살리고, 시대에 맞게 훈련의 옷을 갈아입는 노력을 하고 있다.



년부터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제공하는 제자훈련 교재로 훈련 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자훈련을 수료한 누적 통계를 보면, 제자반은 남자 212명, 여자 437명이 수료해, 총 649명이 제 자훈련을 수료했다. 사역반은 남자 103명, 여자 307명이 수 료해 총 410명이 수료했다. 그리고 2016년 현재 여제자반은 10명, 여사역반은 11명, 남제자반 10명, 남사역반 8명이 훈 련 중에 있다.

강남교회 제자훈련은 현재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제자훈련의 터를 잘 닦아 놓은 부분을 살리고, 시대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다 보니 훈련의 강도, 제자훈련을 받기 위한 사전 과정 체계 수립, 소그룹 리더의 역량 강화 등 시대적 요구에 따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고문산 목사는 제자훈련 개강에 앞서 부교역자들과 제자훈 련 컨설팅 시간을 가진다. 컨설팅 시간에 가장 강조하는 부분 은 목회자 스스로 성실하게 훈련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 하는 것이다. 고 목사는 성경과 교리에 대한 부분은 신학교에 서 배웠지만, 제자훈련과 관련한 목회적 요소들은 아직 배우 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실천적 강조를 중점 사항으로 둔다고 말했다.

과제물 점검 방법, 교재 분석에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 찾기, 인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 등 훈련 교역자 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 히 고 목사는 교역자들과 나눌 때 신앙일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신앙일기 안에는 훈련생들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훈련생일지

라도 일기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를 확인한 교역자는 신앙일기를 토대로 개인면담 을 할 수도 있고, 훈련생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신 앙일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강남교회의 이와 같은 제자훈련 컨설팅 과정은 강남교회 교역자들의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점검하는 시간이며, 인도 자가 먼저 자신을 점검하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시간으로, 강남교회 제자훈련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역 할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고 목사의 사모인 이경실 사모를 통해 목회 자 사모 제자훈련을 실시했다. 이 사모는 자신이 제자훈련을 받은 방법으로 사모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했는데, 제자훈 련 을 통해 사모들과 삶을 나누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했다.

이처럼 강남교회 제자훈련은 수선대후의 정신을 이어받아, 목회자들부터 스스로 변화하고 자신을 돌아보고자 하는 노력



제자훈련에 대해서는 “신앙의 기본 틀을 세우고 신앙관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받아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참여했는데, 예전과 달리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굳건히 내릴 수 있게 돼 너무나 감사했어요”라며 훈련생으로서의 소감을 전했다.

유 집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지금도 그 사랑을 고이 간직하고 나누고 싶어서 ‘마더와이즈’ 스태프로 봉사하고 있다.

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들이 훈련생들에게도 이어져,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려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훈련 통해 믿음의 성장을 경험한 성도들

초등부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는 송미라 집사는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론적인 체계가 없어 좀 더 확실한 부르심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죄를 들추는 것이 두려웠고 불편했으나,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 죄 사함과 부르심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송 집사는 제자훈련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를 제공했고,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됐으며, 훈련된 평신도로 무장돼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마더와이즈’ 스태프로 섬기는 유현숙 집사는 사모의 소개로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한다. 유 집사는 사모가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가 모르게 달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 호기심이 생겨 훈련까지 받았다. 그는 고 목사님에 대해서도, “목사님은 설교하시다가 혹은 기도 중에, 격앙된 목소리로 울컥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며 목사님의 진정성이 느껴져서 좋았어요”라고 고백했다.

유아부를 섬기고 있는 이운덕 집사는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나오게 됐다. 이 집사는 고 목사 위임 예배 쯔부터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아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하며 목사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제자훈련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가는 훈련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 모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족했던 그가 변화돼 가족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했다.

유치부 교사로 섬기며, ‘마더와이즈’ 스태프로 섬기는 이예지 집사는 2009년부터 강남교회에 출석했다. 이 집사도 고 목사님에 대해 “성도들에게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하며, “목사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 집사는 강남교회 제자훈련을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제자훈련은 평신도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고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기초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실질적인 생활에 적용하는 훈련을 제자훈련을 통해 익혔다면, 사역훈련을 통해서 내가 속한 교회를 바르게 알고, 내가 가진 은사로 어느 영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지를 찾으며, 소그룹 리더로서 소그룹 성경공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집사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예배드리다 보니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자녀들이 자라



사실 강남교회는 고 목사가 부임한 후 훈련에 대한 접목 과정이 필요 없는 제자훈련 교회였다. 하지만 고 목사는 세밀하게 훈련의 체계를 세우고 계승·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금씩 체계를 세우고 있다.

유치부와 유아부를 가게 되니 이제야 비로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전의 열정을 찾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 제자훈련을 받게 됐습니다”라고 자신이 제자훈련을 신청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처럼 강남교회 성도들은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역훈련을 통해 어떤 평신도지도자로 성장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고,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제자훈련의 계승·발전을 위해

평신도들의 고백을 통해 강남교회 제자훈련 현장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이들이 훈련을 사모하고 치열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이와 같은 고백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고 목사에게 어떻게 강남교회 제자훈련을 새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고 싶은지를 물었다.

고 목사는 지금까지 해 오던 강남교회 제자훈련을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걸음을 걷게 되기를 소망했다. 우선 모든 교역자가 제자훈련 정신을 갖기를 바랐다. 강남교회 비전 중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라는 비전이 있다. 고 목사는 강남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가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원칙으로 삼고, 제자훈련 정신으로 사역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목회 방향을 세우면서 많은 시

행착오를 겪는데, 결국 시행착오가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 목사는 목회자가 목회의 본질인 제자훈련 철학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사역할 때, 성도들을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울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자신과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강남교회에 부임하는 모든 교역자는 반드시 CAL세미나를 이수해야 하고, 제자훈련 목회 현장을 직접 경험해야 하며, 목회자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고 목사는 이를 통해 부교역자들이 성도들을 세우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기를 바랐다.

또한 고 목사는 소그룹의 역동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싶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마을을 소그룹이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재편성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현재 70세 이상의 시니어 그룹을 묶어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랑방 모임 안에서 풍성한 나눔이 일어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그룹 중심의 역동적인 목회를 올바르게 세워 나가는 일에 좀 더 힘쓸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자훈련 체계를 세워 나가는 데 조금 더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강남교회는 제자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으로 교리 교육, 성경파노라마, 큐티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전 인터뷰를 통해 성도가 훈련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훈련도 훈련생들 각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다.

사실 강남교회는 고 목사가 부임한 후 훈련에 대한 접목 과

정이 필요 없는 제자훈련 교회였다. 하지만 고 목사는 세밀하게 훈련의 체계를 세우고 계승·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금씩 체계를 세우고 있다. 이처럼 제자훈련 2.0 시대를 맞이해 강남교회 제자훈련도 서서히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고문산 목사와 제자훈련 수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난 수료식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듣게 됐다. 30세 시각장애인 공학박사의 이야기였다. 이분은 전도를 받아 교회에 출석한 후 현재 장애인 부서에서 사역훈련을 받고 있다.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궁금했는데, 누군가 책을 읽어 주기도 하고, 혼자 점자를 통해 책을 읽으면서 훈련에 임했다는 것이다.

사실 일반인도 제자훈련 과정을 제대로 수료하기가 쉽지 않은데, 시각장애인이 이 같은 과정을 해 냈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강남교회의 비전 중 하나인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로서 시대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다.

이처럼 제자훈련 철학은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케 만들며,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로 들어서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강남교회 목회 현장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제자훈련 철학으로 다시금 소망을 세우다

현재 강남교회는 제자훈련 철학을 기반으로 사람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살리며, 사회적 영성을 지닌 제자들을 길러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해 온 30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은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유명한 사역이다. 또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를 실천하고자 2015년에는 장애인 사역을 전담하는 사랑부를 신설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위한 사역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형제 교회로 있는 무안화평교회에 전도사를 파송해 그곳에 있는 교회학교 학생들을

돌보는 사역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 강남교회 출신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에 성도들을 파송하는 사역 등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동시에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도 함께 감당하며, 제자훈련 2.0 시대에 맞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고 목사는 강남교회가 이미 하고 있었던 사역들, 앞으로 감당할 사역들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물론 이 모든 일을 균형 있게 감당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시대가 요청하고, 변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고 목사는 제자훈련은 목회자로 하여금 사역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목회의 본질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놓치지 않아야 하는 사역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

했다. 고 목사는 현재 자신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제자훈련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앞으로 강남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세움에 있어서 제자훈련 철학은 계속해서 지켜 나가야 할 목회 본질이기에, 이를 위해 더 많이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고 목사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 번 제자훈련 목회가 쉬운 길이 아님을 깨달았다. 인도자, 훈련생 모두에게 어려운 과정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와 같은 목회 철학이 온전히 세워진 상태에서 사역을 하는 것과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절대 같을 수 없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목회자들이 주목하는 교회. 그리고 어쩌면 그런 주목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목회 현장에 있는 고 목사의 이야기는 한국 교회 목회 현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줬다. 앞으로도 강남교회가 노량진 지역의 빛과 소금으로 지역과 세대를 섬기며, 한국 교회 전체에 온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제자훈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조철민 목사)